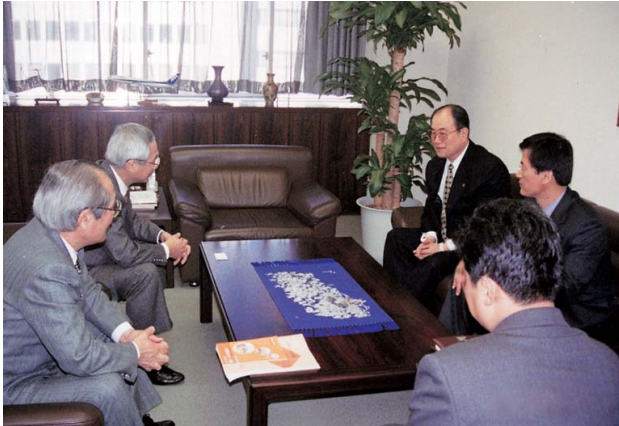


안전협회 일본 중앙재해방지협회 방문



지난 3월 10일부터 6일간 이흥지 회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협회 방문팀은 일본 안전관련 단체의 안전기법 및 교육기법 현황과 상호 업무 협력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일본 방문 길에 나섰다.

중앙재해방지협회 본사에서 Hiroshi Goto 이사장과 의 만남을 시작으로 동경, 오사카, 신끼의 안전위생센터의 교육시설·프로그램 및 각종 안전기법과 기존의 무재해 운동기법, RST 교육훈련 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정착된 것을 보면서 국내현실보다 체계적인 안전문화가 사회 곳곳에

서 정착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강국답게』 매체를 통한 다양한 교육자료는 일본을 앞서 가고 있어, 상호 업무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봉수 국장, 과학기술부장관 표창장 수상



안전협회 안전기술국의 이봉수 국장은 지난 2월 26일 제2회 기술사의 날을 맞이하여 과학기술의 진흥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하여 유공기술사 정부포상(과학기술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봉수 국장은 화공안전기술사로 국내 화공산업에서 파열판(Rupture Disk) 국산화에 성공시켜 산업현장에서의 폭발·화재사고 예방에 기여한바 있으며, 1995년에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안전관리 전문위원으로 활동한바 있다.

현재 안전협회 중앙회 안전기술국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이봉수 국장은 K-OHMS 18001 심사위원과 기술사 검정위원, 한국정책포럼 정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대구지회, 직원 자질향상의 기회 마련



현금으로나마 대구 참사 유가족과 함께 하였다.

대구지회는 지난 2월 28일 직원자질향상을 위해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이완용 소장을 초빙하여 “전문직업인의 자기경쟁력 강화”라는 주제로 자체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매월 자체적으로 직원 자질향상을 위한 발표회에서 한 단계 격 상승시킨 계기로,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대구지회 직원들은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분양소에서 무고하게 숨진 대구시민의 명복을 비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삼랑진양수발전처, 무재해 10배목표 달성



삼랑진양수발전처(처장 박덕규)는 무재해 목표 10배를 달성하고, 지난 2월 7일 무재해달성 인증식을 가졌다. 안전공단 김철규 양산사무소장과 한전기공의 이병림 지점장 등 외부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 박덕규 처장은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만들어낸 값진 성과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안전이 최우선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갖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근로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무재해 15배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모든 임직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부단히 전진할 것을 다졌다.

작업안전에 필수인 안전보건규제 복원 추진

지난 3월 19일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총리·교육부총리,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수위원 등이 참석 가운데 노동부의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다.

이날 보고된 내용은 “상반기 노사관계 안정대책”에서 “근로자 삶의 질 향상”까지 총 8개 항목에 대해 보고되었는데, 그중 안전분야에서 안전보건규제 복원이라는 내용이 눈길을 끌었다.

노동부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보고하면서, 산업재해를 현재 0.77%에서 0.5%의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킬 것이며, 이를 위해서 금년 중에 “산업재해 절반 감소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산재근로자 직장 복귀지원금을 신설하고, 간질환 등을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확대하고, 작업안전에 필수적인 안전보건규제를 다시 복원시킬 것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STOP, 교육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

안전협회는 3월 25일부터 3개월간 IG화학(주)온산공장에 대해 “STOP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은 기존 STOP 기법 교육에만 치중해오던 것에서 탈피해, 적용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교육에서 현장 적용지도·실습, FeedBack에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안전협회는 새롭게 시도하는 이번 STOP 컨설팅이 기업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00인 이상 대행사업장에 정밀점검 실시

안전협회는 향상된 안전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300인 이상의 신규 대행사업장에 대해 업종을 고려한 정밀안전 점검을 지원한다. 금년 2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밀안전진단에는 최신 진단기계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진단팀이 직접 현장을 방문,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서울, 수원지역 중심에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사업장에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